

中國經濟의 不安定性 增大와 日本企業의 對應戰略

崔 聖 伯*

(e-mail: chsb20@hanmail.net)

目 次

- | | |
|--------------------|-------------------|
| 1. 서론 | 4.2 민영기업의 기술혁신 |
| 2. 재도약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 4.3 민영기업 성장의 한계 |
| 3. 중국경제의 관제버블화 | 5. 일본기업의 대응전략 |
| 3.1 관제버블의 배경 | 5.1 일본기업의 현지화 상황 |
| 3.2 관제버블의 위험증대 | 5.2 대중국 진출기업의 애로점 |
| 3.3 과제버블과 도시화 | 5.3 일본기업의 대중국 전략 |
| 4. 민영기업의 역할 증대 | 5.4 중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
| 4.1 민영기업의 역할 | 6. 결론 |
-

1. 서론

2015년 3월 중국 북경에서 전국양회가 개최되었다. 이곳에서 중국정부는 '15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개혁심화 그리고 일대일로 등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부문은 올해 중국의 GDP증가율 목표를 7%수준(2014년 목표는 7.5%)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이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이다. 같은 시기 세계은행도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1%로 하향조정하였고 IMF는 이보다 낮은 6.8%로 전망하고 있다. 각 기관이 제시한 달성 목표치는 지난해 7.5%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부동산 침체 등으로 24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7.4%로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중국경제성장률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 西安培华大学 商学院 教授

있다. 현재 중국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파산과 건설공사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평균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다. 문제는 상당수 건설관련 회사들은 자금조달을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위협의 실체과약도 힘들다. 부동산시장의 혼란으로 중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정도로 은행이나 건설 등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경제도 일본경제도와 같은 잃어버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¹⁾

현재 중국은 세계 500대기업들의 격전지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언급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대중국 사업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미 중국진출 해외기업들 일부는 중국 국내의 임금 및 원자재 가격상승 그리고 중국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등으로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으로 U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아디다스가 중국내 마지막 생산 공장을 폐쇄하였고 미국 완구기업 웬-오(Wham-O)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50%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²⁾

중국내 해외투자기업 중 투자금액이 많은 일본기업들 역시 중국내 기업환경 변화와 중일관계 악화 등으로 철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투자액과 진출기업 수가 대중국 해외진출기업 중 가장 많다. 일본기업들의 대중국진출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선포될 때부터 진출이 시작되어 1989년 텐안먼 사건으로 잠시 위축되었으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1993년경부터 다시 급증하였다³⁾.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일시적으로 둔화 시기가 있었지만 이후 일본기업들의 대중국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합작형태가 많고 진출지역은 연안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섬유, 전기, 기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들이다.

일본기업들이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중국내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중일관계의 악화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북경 APEC(아세아 환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서 각국 영수회담에서 중일 정상회담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주석은 올해 난징대학살 추모식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양국 여론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관계다. 최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1) 부동산 버블 붕괴는 과거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의 경제하강으로 이어졌다. 중국도 부동산대책이 실수하게 되면 중국경제의 혼란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코트라(2013) 『중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p83

3) 최성백(2014) 「동북아의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과 그 가능성」 『일본문화학회6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15

와 일본의 비영리단체 켄로는 '14년 7월 14일 중국인 1천539명과 일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의 9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며 중국인 응답자 86.8%도 일본에 대해 부정적이다.⁴⁾

이런 배경으로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도시바, 시티즌에 이어 파나소닉도 중국에서 철수했다. 일본기업들은 대중투자 대신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에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대중국진출은 저렴한 생산비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연령인구는 '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싸게 제공하는 발전모델 유지도 힘들게 되었고 고정자산투자에 의존하던 성장전략도 수정을 해야만 한다.

올해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를 통한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30년에 걸쳐 연평균 10%이상 성장에 익숙해진 중국은 고도성장시대의 수정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직된 조직문화로 자율성 저하, 부정부패로 시장경제의 왜곡이 심각하다. 더구나 지방정부지도자의 능력 평가에 지방 경제성장률이 반영되고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공급과잉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특권에 안주하여 노력하지 않는 국유기업은 민영기업의 발전 기회마저 저해하고 경제자원의 독점뿐 아니라 국가권력과 유착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금 중국정부는 부패척결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초래된 부정부패와 관제버블 그리고 국유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최근 중국시장에서 해외기업들의 이탈 움직임 있는 가운데 비화교계 기업으로 대중국 투자가 가장 많은 일본기업들의 대응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들은 대중투자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중국시장 이탈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움직임을 한국기업들은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일본기업들은 다른 해외지역에서도 한국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대중국에서도 많은 부분이 한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일본기업들의 대응전략은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재도약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중국의 10대 경제학자 랑셴핑(朗咸平)⁵⁾은 현재의 중국경제를 위기로 진단하

4) 特定營利団体活動言論NPO(2014.7.14)

고 있다. 랑교수는 중국경제성장으로 대변되는 주식, 자동차, 부동산시장의 회복세와 사치품시장의 성장은 투자환경의 불균형과 과잉생산을 가져왔고 제조업에 투자될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이탈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회연구포럼⁶⁾에서도 중국경제를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제도권금융외의 금융부실문제, 기업의 디폴트문제, 부동산/지방정부 부실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중국사회의 부정부패다. 부정부패는 자원분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증폭시켜 사회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도 중국사회의 부정부패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패척결에 노력은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부정부패에 익숙해져 있는 고위층의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하였다.

시진핑정권은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우선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삼공경비의 축소와 호화 연회를 금지시켰다. 삼공경비(三公經費)란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유지비, 공무집대비를 일컫는 말이다. 비공개로 이용되던 삼공경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09년 후반부터 내역이 공개되었고 삼공경비 사용에 대한 규정과 조례도 제정되어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류시장과 고급요식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명주(名酒)인 우량예(五糧液), 마오타이주(茅台酒)와 같은 바이주(白酒)는 일반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었지만 사치품과 투자소장품 등으로 이용되면서 가격은 급등하였다. 그러나 관료에 대한 부정부패척결이 실시되면서 다시 대부분의 명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중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산당의 일당 독제로 인한 부정부패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법치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항이 강한 고위층을 대상으로 부패단속을 하기 위함이다. 현재 개혁의 대상에는 과거 유래 없는 고위층이 포함되어 있다. 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반부패 혐의조사 공무원은 400명에 이르고 이중 성, 시 당위원회 서기나 성장, 시장, 청장, 이사장, 총장 등 고위급 공무원이 160명에 이른다.⁷⁾ 이미 지난해 저우융캉 전정치국 상무위원과 쉬차이허우 전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지에민 전국자위 주임, 리동성 공안부 부부장 등 장관급 28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뇌물 및 공금 횡령 등 범죄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사건이 3664건이나 되고 현

5) 랑셴핑·郎咸平(2011), 『새로운 중국을 말하다』 한빛비즈p24

6) 국회의원연구회(2014), 『한·중 정치경제포럼』 「중국경제의 기회와 위기, 우리의 대응방안」 p32

7) www.moneyweek.co.kr 제8381호

단위 이상 지방정부 공무원도 4000명이상이 구속되었다. 최근에는 부패척결의 대상이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견제를 위해 행정최고책임자에게 종신책임을 묻는 제도도 만들어졌다. 중국은 지방정부지도자의 실적 평가수단으로 경제성장률이 이용되고 있어 이 때문에 지방정부지도자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나 낭비성 공공사업을 강행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동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책임자에게 종신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공업주도형 경제에서 서비스업주도형 경제로,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개혁은 중국경제에 호제로 작용할 수 있다.

3. 중국경제의 버블화

3.1 관제버블의 배경

중국의 경제성장도 건설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CBRE) 조사기관에 의하면 '14년부터 2년간 완공될 세계 쇼핑센터(면적 순위) 10개 중 8개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건설지역은 주로 상해, 천진 등 연해부를 비롯하여 스추안성(四川省) 청두(成都)나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 등 내륙도시까지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 내륙에는 아시아자본의 재개발업체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10년 동안 그 수가 급증하여 매장면적은 '00년에 비해 20배로 증가하게 된다.⁸⁾

중국은 건설업 경기의 영향으로 매년 신규고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 연간 1000만 명의 신규고용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이상 유지를 해야만 한다. 과거 중국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8%성장률 유지에 노력했지만 현재는 고용흡수력이 큰 3차 산업 점유를 높이기 위해 7.2%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4년도 경제성장률 7.4%는 목표수준을 넘은 것으로 중국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 과열로 부동산시장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중국(증권일보)은 지난해 75개 상장사의 평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하 자산부채율)이 지난해에 이어 70%를 웃도는 기업이 74.0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자산부채율 안전선은 최대 60-70%정도다. 75개 상장사 중 부채규모가 100억 위안(약 1조 76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34개에 달하고 중국의

8) CBRE China(Commercial Real Estate Service)(2014)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커(萬科), 바오리(保利), 자오상부동산(招商地產)의 부채규모는 각각 3925억1500억 위안, 2848억9300억 위안, 1079억4600억 위안으로 1000억 위안을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각종 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급문제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수급문제는 시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지도자의 실적평가기준을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각 지방정부는 단기간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투자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동산개발이 시장의 수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개발에 부족한 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최근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자금조달 즉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⁹⁾을 통한 지방채권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 '13년 6월말시점에서 지방정부채권과 우발채권의 합계는 누계 17.9%로 이는 국민총생산의 34.4%에 달한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차입 규제를 위해 제도권은행을 통하지 않는 차입은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자금 수요에는 지방채 발행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관민연대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의 허가 등으로 지방정부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동산시장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의 위기나 도산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져 중국형 관제버블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3.2 관제버블의 위험 증대

중국을 리먼 쇼크 당시 총액 4조 위안에 달하는 버블안정화 정책자금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제한령을 실시하였다.¹⁰⁾ 주택구매자는 2채 이상 구매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고 주택구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3채 이상은 기본적으로 주택대출을 할 수가 없게 하였다. 그 결과 '11,'12년 부동산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러나 시진핑정권 들어서면서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어 시진핑정부는(중국인민은행과 은행업무감독관리위원회) 3채 구매의 경우 보증금비율을 30%로 내리고 대출도 기준금리

9)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말의 어감이 뭔가 부정적인 냄새를 풍겨 비리와 부정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 금융(類似金融)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10) 2009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도시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1가구 2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주택구입 제한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 했다. 올해부터 집값이 하락세가 지속되자 일부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의 0.7배 내렸다. 뿐만 아니라 대출도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부동산시장은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투자하락으로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도시화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농촌주민의 도시이주가 1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구입의 평균연령은 27세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구입 연령층이 '20년 이후는 크게 낮아지게 된다. 결국 중국정부는 도시화정책에 기대하고 있지만 주택구매자의 감소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중국경제의 관제버블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도시화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짜양수성장지우시(江蘇省常州市)는 상해에서 북서로 170키로 이동하거나 북경에서 상해고속철도로 약1시간 이동하면 도시와 농촌부의 인접부분 있다. 이곳은 상해나 짜양수(江蘇), 무시(無錫), 난징(南京) 등 주변대도시에 경쟁의식도 있어 지방정부가 대규모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공급은 현지인들의 구매력을 따라갈 수 없는 공급과잉이다. 이곳은 중국의 10대 가격하락지역이기도 하다. 다른 지방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정책은 수급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적과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특유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은 정부가 우선 농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하여 국유화하고 민간주택개발업자에게 매각(토지사용권)한다. 토지사용권 매각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¹¹⁾ '13년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 위안에 달한다. 이 금액은 지방정부 전체수입의 5할에 달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국최대의 민간택지개발업자인 것이다. 토지사용권 매각 차익의 감소는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판매량과 가격 유지를 해야만 재정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이 부동산의 수급불균형과 가격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지도자의 단기실적 수단으로 부동산(건설)시장이 이용되면서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동산(건설)업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과급효과가 크고 실적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본투입으로 성장해왔는데 자본이 부동산으로 과잉 투자되면서 공실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자본투입속도가 늦춰지면 위기는 한층 높아져 중국경제의 관제버블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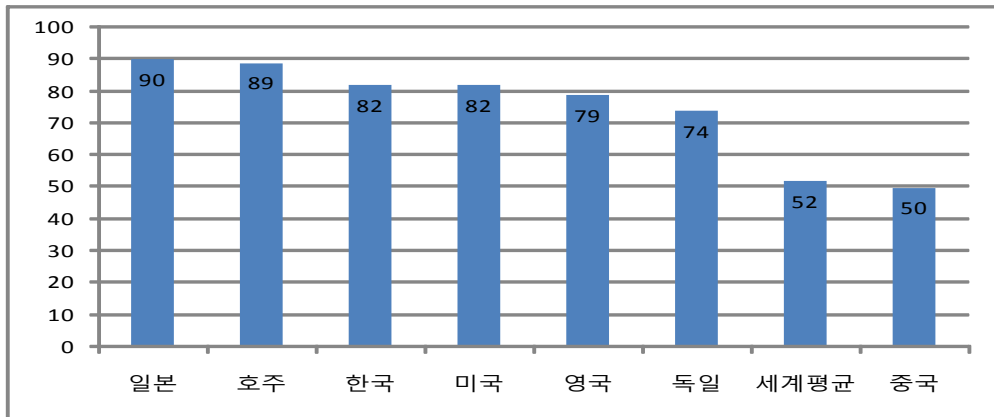
11) 중국의 경우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국유이다. 각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이 주어지는데 주거용은 70년, 공업용 50년, 교육, 과학, 문화, 위성, 체육용지 50년, 상업, 여행업, 오락업 40년 등으로 토지매매시 한국과 같이 개인소유가 아니라 사용권이 매매된다<중화인민공화국 도시와 읍 국유토지사용권 판매 및 양도 임시조례>

3.3 과제버블과 도시화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다. 농촌의 잉여인력을 도시로 유입하게 함으로써 과거 고도경제성장기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의 전환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¹²⁾

일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생산성 증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정책이다.¹³⁾ 중국의 도시화율(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 인구 비율)은 2011년 기준 51.3%로 다른 선진국의 70%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그래프1>. 따라서 도시화를 통해 미래의 경제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프1>세계 각국의 도시화율



자료:SUMITOMO MITSUI TRUST BANK(2013.2) 『調査月報 2013.2』 「都市化による中國經濟成長の可能性」 p3

도시화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농촌주민의 도시 이주로 산업별 1인당 생산성은 제2차 산업에서 제1차 산업의 5배 이상, 제3차 산업에서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중국정부계획은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를 이동시켜 도시화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도시(상해시등의 대도시는 예외)는 농촌에서 이주해 온 사람에게 도시주민과 같은 호적을 부여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에서 도시호적이 갖는 권리를

12) 于濤(2013) 「中國人口老齡化与老年消費問題研究」 『人口、資源与環境經濟學』,吉林大學 ,p34

13) SUMITOMO MITSUI TRUST BANK(2013.2) 「都市化による中國經濟成長の可能性」 『調査月報 2013.2』,p3

14) SUMITOMO MITSUI TRUST BANK(2013.2) 「都市化による中國經濟成長の可能性」 『調査月報 2013.2』,p4

갖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도시화로 경제성장의 달성과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는 '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국경제성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1인당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가 과제다. 도시화의 가속화는 농촌에서 공업, 서비스 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시키고 도시에는 규모경제나 범위경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시화로 농촌에서 젊은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고령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 '10년 인구조사에서 20~39세 젊은 경제노동인구는 약 3할 이상이 도시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속도적인 인구이동으로 농촌에서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연령층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주자에 대해 도시호적이 부여되면 젊은 노동인구의 도시이동이 가속화되고 그 후도 이주자의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시부와 농촌부의 인구구성 격차를 확대시켜 지역 간 소득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25년에는 중국의 고령자 인구는 2억 명이 넘지만 그 6할(1억200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한다. 농촌에서 현재 취학 중 젊은 인구가 도시부에 이동하면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¹⁵⁾ 더구나 농촌의 낮은 소득수준을 방치하면 고령화에 빈곤화까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도시화는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역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농촌에서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양쪽 간 불균형이 심화될 뿐이다. 셋째 이주자의 도시호적 부여는 도시호적자의 사회보장부담 증가를 강하게 한다. 중국뿐 아니라 중소득국가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나 농촌이주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정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득국가의 공통점은 소득격차가 큰 가운데 공평한 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자금이전의 강제는 사전에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정치, 사회불안은 사회보장제도 합의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촌부에서 도시부로 2-3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常州市의 사례를 보듯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이 부동산 구매의 실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공급된 부동산이 근로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을

15) 정국정부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25년에 고령화률을 20%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해 재정수입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인상의 주체가 되고 있다. 또한 주택개발업자의 재고부담으로 가격폭락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결국 관제버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의 도시화 건설 입찰에 국유기업 참가율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공정한 가격경쟁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산물로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부실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민영기업 참가가 중요하고 동시에 민영기업에 시장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만 한다. 민영기업은 시장원리가 적용됨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안정을 위해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민영기업의 역할 증대

4.1 민영기업의 역할

중국경제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중국 경제성장에는 국유기업의 역할이 컸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파트너인 국유기업에 금융과 행정적 지원의 특혜를 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정부는 더욱 유착이 심화되었고 부정부패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2014))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75개국 중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가 100위권으로 하위권에 있다. 국가권력의 힘은 이권과 뇌물로 연계된다. 이런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사업의 부실성은 물론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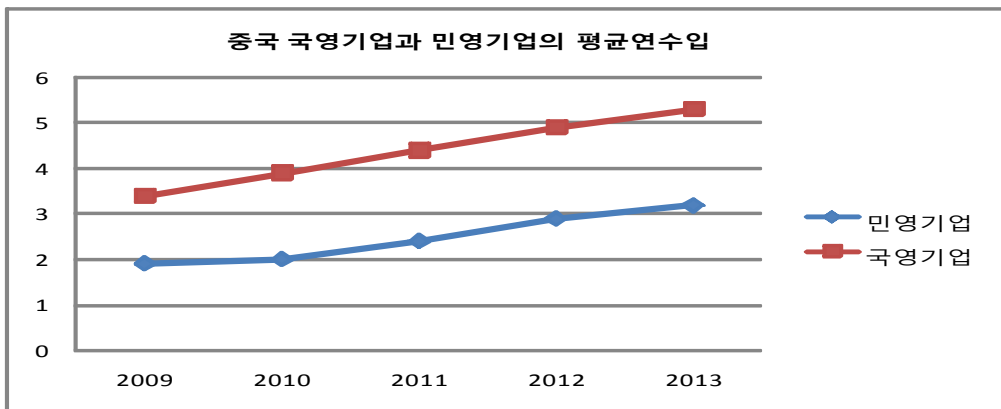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서 민영기업 활성화를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영효율성이 낮은 국유기업에서 효율성이 높은 민영기업들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생산효율이 높고 고용창출력이 높다. 뿐만 아니라 혁신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민영기업이 강한 지역일수록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민영기업은 역사는 아직 짧은 편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역사는 1987년을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중국내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출현하여 현재는 중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초기 민영기업은 중후장대형 국유기업의 틈새를 노려 개혁개방 초기 5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가공무역중사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따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향진기업형태로 성장하였다.(농촌 외곽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농민이 비농업에 종사하는 기업형태) 중국 민영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기업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할 시점이다. 그동안 국유기업 편중에서 탈피하여 민영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00년대 후반 국유기업이 변영하고 민영기업이 쇠퇴하는 국진 민퇴가 문제가 되었다. 이젠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는 민영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민영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사고전환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2013) 중국은 중소기업이 4200만개에 달한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 500대기업 중 100개가 중국계 기업이다.¹⁶⁾ 중국 민영기업의 성장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래프3>과 같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평균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영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프2>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평균연수입 추이(2014)



자료:中國國家統計局(2014)p52

중국 최대 민간경제단체(중화전국상공업연합회)¹⁷⁾는 매년 전국민간기업 중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많은 현지 미디어에서 소개되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중국민간기업의 최대기업은 수닝콩푸(蘇寧控股)그룹이다. 동그룹은 중국가전판매점 최대기업으로 전국점포수는 1700개에 이른다. 일본의 LaOX¹⁸⁾을 '09년에 인수한 그룹으로 일본

16)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소기업연구소(2014)p12

17) 中華全國工商業連合會(2014)『전국민영기업 상위 10대그룹』,p8

18) 아키하바라를 본거지로 하는 중견가전관점으로 많은 점포가 중국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주축으로 한 면세점업이 특징이다. 회사의 라옥스 (LaOX)는 라틴어 Lar(가정의 수호신)과 Vox(목소리)를 합친 것으로 가정에 행복을 부르는 소리라는 뜻이다

에서 지명도가 높은 그룹이다. 2위 리엔콩푸(聯想控股)는 컴퓨터 레노버로 알려진 그룹으로 주로 Private Equity(PE)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3위 산둥웨이치아(山東魏橋)창업그룹은 면방직으로 세계최대기업이다. 상위 2그룹과 비하여 국제지명도는 낮지만 짜양서핑(張士平)이사장은 중국국내 몇 안 되는 자산가이다.

민영기업은 규모면에서 국영기업보다 많이 떨어진다. 국유석유회사인 중국석유화공그룹은 '13년도 매출액은 2조9459억 위안으로 수닝(蘇寧)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이 순위는 기업측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순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를 들면 보험대기업 중꾸어핑안(中國平安)보험그룹은 蘇寧을 넘는 규모지만 순위에 없다. 또 넷게임·SNS최대그룹 텡신공푸(騰訊控股)그룹은 32위, 전자사거래 최대기업 알리바바 그룹도 37위 등 순위에 누락되었다.

그러나 중국 토종기업들의 경쟁력 상승과 국내 생산비상승 등으로 외국계기업들은 잇달아 중국공장이나 현지기업을 철수하고 있다.

<표1>2013년 중국민영기업 상위10대그룹(매출액기준)

순위	기업명	소재지	업종	매출액(억 위안)
1	蘇寧控股그룹	江蘇省	소매업	2,798.13
2	聯想控股	北京市	전기기기·재료	2,440.31
3	山東魏橋창업그룹	山東省	어패럴·방직	2,413.87
4	華爲投資控股	廣東省	전기기기·재료	2,390.25
5	正威國際그룹	廣東省	비철금속	2,338.26
6	江蘇沙鋼그룹	江蘇省	철강	2,280.36
7	中國華信能源그룹	上海市	도매업	2,099.85
8	大連萬達그룹	遼寧省	부동산	1,866.40
9	浙江吉利控股그룹	浙江省	자동차	1,584.29
10	万科企業	廣東省	부동산	1,354.19

자료:中華全國工商業連合會(2014) 『전국민영기업 상위 10대그룹』 p8

세계의 공장으로서 간주되어왔던 중국에서 이 같은 외국기업의 탈출은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노키아폰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일본 파나소닉과 샤프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을 떠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시계제조업체인 일본 시티즌도 광저우 공장을 폐쇄했다. 인건비와 부동산값 상승으로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성 매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미얀

마 등 인근 동남아 국가의 외국기업유치정책도 탈 중국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자국기업에 대한 환류유인 정책도 탈 중국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외에 나가있던 미국 기업들의 귀환을 독려하면서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 해왔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들도 계속되는 엔저 때문에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생산이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일본 기업들은 더구나 중국 현지에서 반일정서까지 겹쳐 탈 중국 유혹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내 토종기업의 경쟁력상승과 해외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주된 이탈의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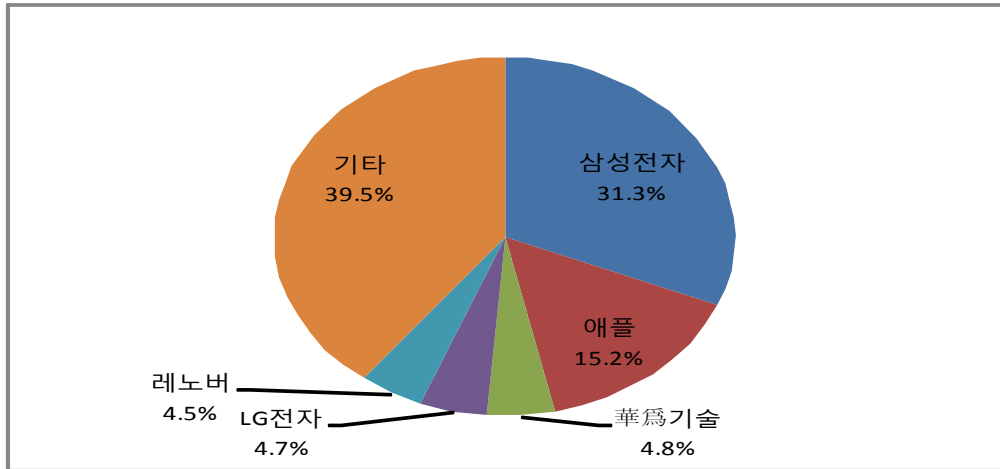
4.2 민영기업의 기술혁신

중국의 민영기업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세계 슈퍼컴퓨터 기술, 고속철도 기술, 국제 주요 과학기술논문 등 중국의 과학 기술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저비용의 우위를 앞세워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기술혁신의 향상은 더욱 진보하고 있다. 중국의 R&D지출은 연평균 성장률이 23%에 달해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R&D지출액의 70%이상이 기업에 의한 것으로 기업 주체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도 인터넷 보안시장은 원래 미국의 mcafee 혹은 symantecstore, 러시아의 security등 글로벌기업이 주력경쟁자였다. 그러나 이들 세계적 대기업은 단기간에 중국의 치후(奇虎)에 의해 우위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 원인은 치후의 시장판단이 해외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작용했다. 치후는 무료와 대중이라는 사업모델을 일찍이 도입했다. '05년창업자 奇虎는 창업초기 kaspersky 보안대기업의 제품판매를 수익원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간 100위안이라는 서비스료는 컴퓨터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당시는 신용카드도 보급되지 않아 지불도 불편 때였다. 그래서 업계 처음으로 완전무료모델을 만들었다.

무료보안서비스는 (베이베이)배배 게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안기반의 고객을 무기로 관람소프트, 검색엔진, 스마트폰의 보안이나 App store, 넷트게임에 사업을 확장하여 경쟁력을 유도했다. 사업확대에 따라 광고수입이나 게임수입료로 수입원도 확보되어 '13년 매출액은 6.7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배 증가했다. '11년3월에는 미국 뉴욕시장에 상장하여 시가총액이 90억 달러에 달했다. 이 힘은 중국 넷트시장에 이변을 초래했다. mcafee 등 인터넷 보안 세계최대 기업들을 중국에서 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인터넷시장 검색 최대기업인 바이두(百度)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프3>기업별 스마트폰 시장점유률(%)



자료:2013년 기준, 『IDC(International Date Corporation Japan』 p32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은 통신설비, 기기메이커, 화웨이(華爲)의 기술 존재감이다. 스마트폰시장에서는 한국 삼성과 미국 애플에 이어 3위이다<그래프 3>. 통신기지국의 모델통신 인프라로는 스웨덴의 Ericsson에 이어 2위이고 과거 경쟁한 NEC등 일본기업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업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매출액은 약 4조 위안(전년대비8.5%증가)이다.

전화교환기를 수입판매하던 영세기업으로 1987년에 시작한 화웨이가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는 전주식의 1.18%정도만 보유하고 나머지 98.82%는 종업원지주회사¹⁹⁾가 간접 보유한 형태이다. 화웨이는 순환으로 CEO을 맡고 있다(복수의 이사가 1년마다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맡음). 종업원지주제도는 任회장이 창업 때부터 고안한 것이다. 당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통상의 임금 외에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인센티브제도가 고안되었다. 중국은 예로부터 財散人聚(자신을 재산을 공유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화웨이는 이런 사상을 실천했다. 이제도로 많은 인재가 모여들었다.

또 순환 CEO는 경영에 있어 하나의 실험대였다. 여러 명의 경영자로 구성된 CEO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회사가 경직화되는 것

19) 1997년 기아자동차의 부도 당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국내 유일의 대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주식소유구조를 보면 포드차9.4%, 마쓰다7.5%, 이토츠허2%, 창업자가족1%, 종업원지주사14.2, 당시 김선홍 사장의 소유율은 미세함. 문제는 전문경영인이 종업원지주사를 활용하여 그룹을 개인 기업처럼 움직였던 시기도 있었다. 따라서 화웨이도 상황은 다르지만 종업원지주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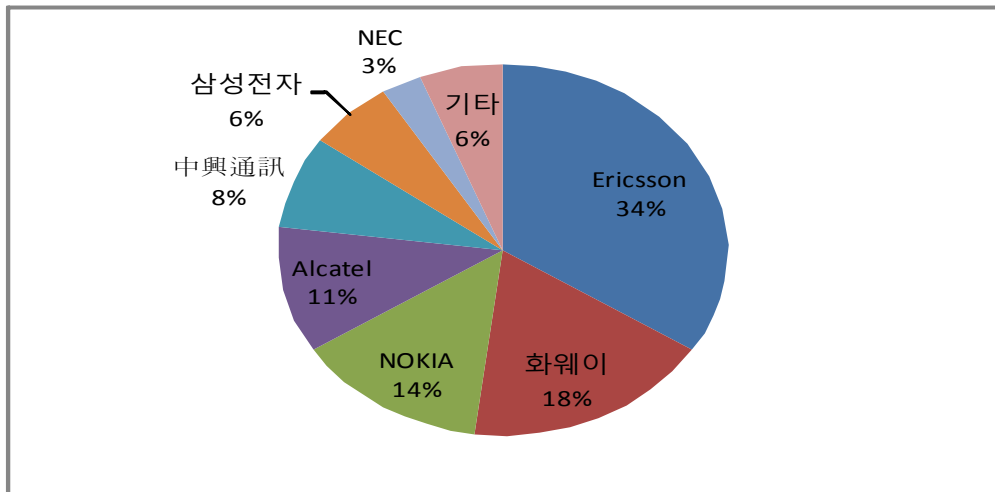
을 막을 수 있다. 중국과 구미기업문화를 융합한 시스템인 것이다. 화웨이는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하고 있다.

전기산업은 매우 격동이 심한 산업이다. 최근 일본기업은 하락 추세에 있고 한국 삼성전자도 성장속도가 감속하고 있다. 화웨이의 LTE관련 중요 특허보유건수는 세계 톱이다. 지금은 기술표준의 책정을 준비하여 업계의 변혁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네트 통관확대도 위협적이다. 작년 9월에 뉴욕주식시장에 상장한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중국 네트통관시장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년은 전년에 비해 42.8%증가하여 1조8851억 위안(중국전자상무연구원)로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통신 인프라에 있어 중국계 화웨이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세계 2위로 성장하였다. 중국계 기업들은 다분야에서 글로벌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그래프4). 앞으로 중국계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글로벌기업에 더욱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든 기업들이 민영기업이라는 점이다. 거대시장 중국에서 중국민영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선진 글로벌기업들이 고전하고 이다.

<그래프4>모바일 통신 인프라 기업 별 점유율



자료: 자료:2013년 기준 『IDC(International Date Corporation Japan』 p32

4.3 민영기업 성장의 한계

시진핑체제의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분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국유기업의 독점을 막아 민영기업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등 공평 컨센서스가 정부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올 상반기 투자를

보면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이 더 높다. 이는 중국경제가 내수시장 확대, 민영기업 지원 등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14년 9월1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공개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250억 달러로 과거 신규상장중 최고액이다. 3억 명 이용자의 중국 네트워크 통관시장 8할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 성장력에 세계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가운데 마윈(馬雲)회장은 그것을 실현한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알리바바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민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이다.²⁰⁾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자본과 노동의 투입확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과잉투자의 폐해가 나타난 상황에서 정책의 한계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기술은 해외에서 구입하면 된다는 의식이 강하여 연구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낮다. 인도의 경우는 연구개발자의 대부분이 연구자출신이지만 중국기업의 경우는 기업매수(M&A)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경우는 기술혁신의 동기도 약하다. 국유기업 경영자의 인사는 공산당이 결정할 뿐 아니라 정부가 빈번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경영의 독립성도 약하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나 전력, 전기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과점상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나아가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특혜가 민영기업의 성장마저 저해하고 있다.

리먼 쇼크 이후 실시된 총액 4조 위안의 공적자금도 국유기업이 독점함으로써 국진민퇴의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폐해 때문에 '13년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을 허용하는 혼합소유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14년 8월말 공산당은 국유기업 임원 급여 50%를 삭감했다. 나아가 공용차의 사용도 제한하는 등 국유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문제의 근원이 소유와 지배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민영기업의 활성화 정책들이 근

20) 알리바바가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바일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요만큼 체제가 안정적이진 못하다. 알리바바의 모바일 광고료는 PC에 비해 낮아 알리바바의 수익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경영권 리스크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지배구조 등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잭 마 CEO를 비롯한 30명의 창업 파트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다.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 선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 지배구조로, 언젠든 잭 마 CEO를 비롯한 창업 파트너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험성 안고 있다는 의미이다. BDA차이나 대표는 잭 마 CEO가 마치 종교단체의 수장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본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와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불안이 증폭되어 후진타오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중국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였고 뒤이어 시진핑은 정치권력의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의 중시, 환경 친화적 경영, 윤리경영, 노사상생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민영기업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 국가정책이 우선시 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정부의 권력과 인맥을 가진 국유기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활동범위는 그만큼 좁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을 민영기업으로 과감한 전환과 함께 국가에서 분리 독립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구호나 중앙정부정책 발표만으로는 민영기업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5. 일본기업의 대응전략

5.1 일본기업의 현지화 상황

일본기업의 대중국진출은 '80년대는 불과 6.5%였으나 '90년대에 이르러 약 80%가 진출하였다. 그 후 제3차 투자 붐이 진행한 '00년대에 20%의 기업들이 진출하였으나 이때는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본 기업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주화와 투자환경을 탐색하면서 연대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한 현상이다.

또한 출자형태별로 보면 '00년대 이후 독자(100%)가 53.2%로 절반이상이었고 합자37.8%, 합작2.5%, 위탁가공 등이 6.5%로 '00년대 이후 독자투자진출 형태가 급증하였다. 이는 중국이 WTO가입에 따른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하고 출자비율규제나 독자에 의한 국내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기업을 진출지역별로 보면 운남성, 감숙성, 신강위구르 자치구 등 3개성을 제외한 27개성, 시, 자치구에 진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지역의 “장강델타지역”이 44.6%로 가장 많고 북경시, 천진시, 대련시 등 환발해지역은 33.3%이고 광둥성 등 “화남지역은 16.9%로 이들 연해지역에서만 92%가 진출을 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국가경제정책에 따른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진출하고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중소기업은 장강델타지역으로 상해, 강소, 절강에서만 52.2%, 이외 대련, 천진, 산동의 환발해와 광동에 거의 대부분 집중 진출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수도 북경과 서부의 사천, 섬서 등 각 성, 시 등 내륙까지 집중 진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 북경에는 대기업의 주재원 사무소와 총괄거점의 서비스업이 집중진출하고 있고 청두, 중경은 자동차 관련업종 진출이 많다. 또한 최근 내륙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섬서(시안)도 일찍부터 대형 전기통신 업체진출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중국전역에 진출하여 다국적기업들과 경쟁을 염두 해 두고 거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군으로 등장한 것은 과거 진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은 제조업이 83.7%, 비제조업 16.3%인데 비해 대기업은 제조업이 71.2%, 비제조업이 28.8%으로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중소기업은 주로 법류, 세무, 컨설팅과 음식, 호텔 등에 진출 비중이 높은 반면 비제조업분야 금융, 보험, 통신, 도소매, 물류에서는 대기업이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5.2 대중국 진출기업의 애로점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절대적인 하에서 국가행정명령은 정부(正否)에 관계없이 따라야만 한다. 비록 행정명령이 부당할 지라도 따르지 않으면 더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법령의 미비나 불투명성, 세제의 미비나 그 운영의 불투명성, 법령의 자의적인 운용이나 불투명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사회보장규정이 복잡하게 변경되고 보험료를 인상도 불투명, 인지세에 대한 해석 불투명, 상해나 강소성간에 증치세에 대한 세무서의 대응이 다를 뿐 아니라 법령정비 그 자체나 운용에 대해서 현지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중국은 매년 대외무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율, 지적재산권보호, 무역권부여, 외지기업들 간이나 외자와 중국자본 간에 차별적 대우, 서비스 무역(통신, 건설, 유통, 금융, 운수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문제 등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 노동현장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노사 갈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기업과 중국국내 노동자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적 이질성이 노사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겹쳐 있는 해외 진출 기업에서는

노사 간 의사소통이 양자 간의 신뢰 형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노사 갈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국진출 일본기업들은 중일 역사왜곡문제가 겹쳐 일본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대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5.3 일본기업의 대중국전략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이후 시장경제체제 이행으로 발전도상국 중 최대 규모의 FDI 수용국이 되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의 산업구조변모와 대외무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중국과 투자 상대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긴밀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FDI 대부분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화교계 기업의 직접투자이고 비화교계기업으로는 일본계 기업이 선두다.²¹⁾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2년 이후부터 본격화하였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해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에서 일본의 비율은 비화교계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계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²²⁾.

‘14년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도 보다 10.4% 증가한 1,350억 달러로 과거 5년 만에 최고액이다. 이 중 ASEAN지역 투자는 236억 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30%(91억 달러)감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생산거점재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중국 국내의 생산비상승과 중일 관계 악화 등으로 중국에서 ASEAN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다.²³⁾ 특히 태국에서 주변국으로 확장하는 태국+1 현상이나 중국+1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제트로(일본무역진흥공사)가 신흥국 진출 개별희망 설문조사에서 일본기업들은 동아시아 및 ASEAN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지역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중남미이나 서남아지역 진출 희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4년도 현재 대중국진출 일본기업은 2만 5천개 정도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42.2%로 가장 많다. 기업 규모별로 직원 수는 10~50명 미만이 32.9%

21) 公益財団法人 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2014), 中國における日系企業の立地戦略の変化と影響要因p23

22) 商務部「外商投資統計」とJETRO (2013) p9

23) 國際協力銀行(2014)『わが國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報告』: 중기적인 유망 국에서는 조사기업 상위 3개국의 득표율은 45% 이었고 이 중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에 이어 태국, 베트남순위였다. 또 최근 각국·지역의 정치, 사회 정세의 문제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지역과 경제 관계가 강한 나라·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의식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직 중국에 대한 경제적이점을 인식하고 있다.p42

로 중소기업 진출이 두드러진다.²⁴⁾ 또한 전체 진출기업 중 약 8천사 정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일본의 시장 조사기업 테이코 쿠데이터뱅크(帝國データバンク)²⁶⁾가 실시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에 이미 진출한 업체 중 82.0%가 현지 생산거점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진출 일본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내 새로운 새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히타찌물류(日立)는 무역결제시스템 대행을 개시하였고 마쓰다(松田)는 환경기술을 응용한 자동차판매대수를 7할로 확대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 ELNA(エルナー)는 선남(深南)電路有限公司와 전략 파트너를 맺고 중국시장에 사업을 전개하였고 미쯔이물산(三井物産)은 중국에서 기업과 병원에 식품 공급 사업을 전개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8대 전략산업에 맞춰 건강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RIEI는 일본 중견양호회사다. 일본국내 양호시설은 43개소이지만 '03년에 태국을 진출하는 등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중국에는 '12년 지역밀착형 소규모다기능형의 병원·케어·서비스 등 재택양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1억 명의 65세 이상 인구는 연간 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30년에는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돌봄은 자식이 돌본다는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중국에는 민간자본의 노인 케어는 아직 드물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와 떨어져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 케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RIEI는 노인케어를 일본과 같은 위생관리로 중국에서 일본식 양호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판이 좋은 것은 일본식 認知症케어다. 중국에서는 인지증의 이해가 낮고 정신병 취급으로 침대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 RIEI는 행동을 면밀히 파악 후 경지 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약 전문판매로 유명한 Welcia 홀딩스는 2016년까지 중국에서 대중 약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현지 유통업체인 빠이리엔그룹(百聯集團) 그리고 네트 판매의 상하이메이러통판상업(上海每日通販商業)과 합작으로 리엔후화매이러링 상업(聯華每日鈴商業)을 설립했다. 동사는 '12년부터 화장품, 잡화를 주로 판매하는 벚꽃작업장(櫻工房)이라는 점포를 상하이시와 쑤저우시(蘇州市) 등 5개

24) 帝國データバンク(2010.10.22),p7

25) 경제계50(2014.2.24) 『中國進出する日本企業の經營難』,p14

26) 帝國データバンク(2014),p13

판매점을 가지고 있다. 동회사는 각 점포를 모회사의 이온 등이 전개하는 일본계 쇼핑센터(SC)로 확대하고 향후 3년 안에 점포수와 매출액을 현재의 4배인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8대 전략산업 중 국민의료관련 산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망이 밝은 업종이다.

통번역서비스의 A&People사는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국내 부유층을 상대로 독자 브랜드의 스킨케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우선 '15년 매출액은 약 40억 원 목표로 판매점도 현재 150점에서 연내에 600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중국에는 한국산 화장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일본계 화장품이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화장품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환경관리협회는 전업체가 공급자의 화학물질관리체제를 조사하여 감사를 일체화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제도를 활용하는 공급자는 개별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기업들은 우선 경쟁력이 어려운 분야는 해외 이전이나 사업 확장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업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전략산업 진출에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도 새로운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중일관계개선도 하루 빨리 풀어야할 과제다. 중국입장에서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기업의 이탈은 자본력과 선진기술력이 동시에 이탈함을 의미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은 거대시장에서 우위와 기업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상호호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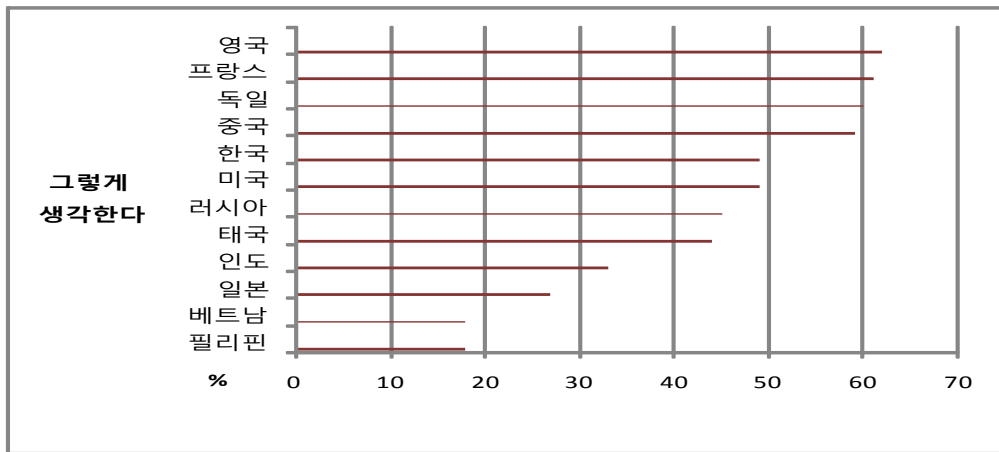
5.4 중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최근 중국의 두각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20세기는 팩스 아메리카시대였다면 21세기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등장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비롯하여 군사대국, 소비대국, 외환보유1위, 문화대국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국이 되었다. 미국의 유력조사기관 rewe reseach center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여 초강대국이 되겠는가” 라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선진국들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반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답한 국가들은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대립하는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래프6>.

최근 중국경제의 위상적 실험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의 설립이다. AIIB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관으로 인프라건설에 대상을 둔 것이 특징이다. AIIB와 경쟁하는 아시아개발은행에 역대 총재를 보내온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참가했다. 그 후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참가하였고 머지않아 유럽 여러 나라들도 참가가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AIIB을 주변제국과 관계 안정화의 수단으로 이용됨을 강조하면서 중앙아시아 제국은 실크로드경제벨트, 동남아시아제국과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중국 확장주의에 불안을 느끼는 주변제국에 인프라개발자금을 제공하는 실리로 접근하고 있다. 과잉 생산력에 있는 소재산업의 수출처도 되고 중국에 있어 일거양득이다.

<그래프5>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는 대국이 될 것인가?



자료: Rew Research Center(2014) 『2014년 봄 국제여론조사』, p27

중국은 AIIB에 한일 참가를 강하게 희망함으로써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사문제 및 영토 분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의 참가는 한중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한중 관계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한국관광광사(2014)에 의하면 방한 중국인은 '06년90만 명에서 '13년433만 명으로 20-25%증가하였다. 한편 방중 한국인은 같은 기간 매년 400만 명 정도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중일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외무성(외교청서백서,2014)의 중일 인적교류에 대한 조사를 보면 '07년 방일 중국인 수는 114만 명이었으나 방중 일본인 수는 398만 명에 달하였

다. 그러나 '13년 현재는 각각 420만 명, 288만 명으로 일본인의 방중은 급감하였다. 따라서 중일 모두 관계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중일 무역은 달러기준으로 '10년, 13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없던 일이다.

일본경제단체는 올해 중국에서 환경협력에 대한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분쟁문제나 아베 수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중국은 원칙을 굽이지 않고 있어 중일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중국은 대일본승전 70주년을 준비하고 있어 정치면에서도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중국을 무조건 봉쇄하는 정책은 어려울 수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일은 전략적인 경쟁관계이다. 경쟁관계인 국가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화가 중요하다.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국과 관계개선만이 경제적 실리와 평화안정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동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만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중일관계의 개선은 극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뿐 아니라 한중일 번영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중심으로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6. 결론

최근 중국정부의 부정부패 단속으로 사치품 시장에는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부정부패로 특수를 누렸던 고급음식점, 고급선물점, 명주 등의 업종은 도산이 잇고 있다. 하지만 부패척결은 정치개혁이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아님으로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하락하면 일반인들의 소비가 가능하여 소비시장은 더욱 활기를 찾을 것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중국기업에도 덕이 된다. 중국사회의 공정한 경쟁은 미래 중국기업이 글로벌기업들과 경쟁을 위해 반듯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중국정부의 과도한 권한도 문제다. 과도한 권한은 부정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인 부동산시장의 관제버블징후다. 최근 중국은 부동산시장의 관제버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게 되면 부동산 가격안정과 농촌인구의 소득증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매년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

지만 앞으로 실효성이 문제다.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따른 가격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한다. 과도한 정부개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특유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은 정부가 우선 농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하여 국유화하고 민간 주택개발업자에게 매각한다. 이때 토지사용권 매각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토지사용권 매각 차익의 감소는 지방정부 재정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판매량과 가격을 유지해야만 한다. 부동산의 초과공급과 부동산의 가격유지 정책은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 결과 부동산은 공급 과잉되었고 시장가격의 왜곡을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들은 그보다 낮은 가격을 원하지만 정부는 재확보를 위해 가격유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부동산 시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위험성은 정부가 원인제공자로 관제버블이다. 결국 도시화정책이 부동산의 공급과잉과 가격유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주목할 부문이지만 도시화가 실패하면 관제버블로 중국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 올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기업의 중국시장 이탈현상도 문제다. 글로벌기업의 중국시장 이탈현상은 중국 국내의 생산비상승과 토종기업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 진출 해외기업들은 인도나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등 인근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기업유치정책 그리고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자국기업에 대한 환류유인 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기업들의 이탈은 투자금 이탈뿐 아니라 선진기술 이탈까지 더해져 중국경제의 선진화에 어려움을 줄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하락 등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해외기업의 우대정책유지와 차별화 철폐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결국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국영기업이지만 최근에는 민영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세계 슈퍼컴퓨터 기술, 고속철도 기술, 국제 주요 과학기술 논문 등 중국의 과학 기술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저비용의 우위를 앞세워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기술혁신의 향상으로 더욱 진보하고 있다. R&D지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달해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다. 특히 R&D지출액의 70%이상이 기업에 의한 것으로 기업 주체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 국가정책이 우선시 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정부의 권력과 인맥을 가진 국영기업이 우선시 되고 있어 민영기업의 활동범위는 그만큼 좁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국영기업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가에서 분리 독립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

이 선행되어야한다.

중국경제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중국 진출해외기업마저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비화교계 중 대중국투자가 많은 일본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ASEAN지역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중국 투자는 크게 줄이고 있다. 중국 국내의 생산비 상승과 중일관계 악화 등으로 중국에서 ASEAN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 주변국으로 확장하는 태국+1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제트로(일본무역진흥공사)가 신흥국 진출 개별희망 설문조사에서 일본기업들은 동아시아 및 ASEAN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중남미이나 서남아 지역 진출 희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의 중국 이탈현상은 사업의 전략적인 수정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경쟁력이 어려운 분야는 중국시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 확장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업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전략산업 진출에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자국산업보호도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따라서 중일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중일 모두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중일관계는 지리적인 조건과 무역량으로 보아 중요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다. 상호 경쟁관계인 국가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화가 중요하다.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 관계개선만이 경제적 실리와 평화안정으로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등회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만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중일관계의 개선은 극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뿐 아니라 한중일 번영에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노력도 미래의 한중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상호이해와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진정한 상호공존의 협력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 堀江保藏(1950)『外資輸入の回顧と展望』,有斐閣
- ジェフリー・ジョーンズ(桑原哲也他譯)(1998)『國際ビジネスの進化』,有斐閣
- 高橋直樹(2007)「〈解説〉2006年わが國の對外直接投資動向(國際收支統計ベース)」國際協力銀行『開發金融研究所報』2007年10月第35号
- 八木三木男(2008.2)「日本企業の對中國進出」『京都産業大學中國經濟プロジェクト』,京都産業大學
- 郎咸平(2011)『새로운 중국을 말하다』,한빛비즈,p24
- 코트라(2013)『중국의 한국기업 진출현황』,p83
- 國際協力銀行(2014)『わが國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報告』
- 최성백(2014)「동북아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과 그 가능성」『일본문화학회61집』, 한국일문문화학회,p215
- 국회의원연구회(2014)『한·중 정치경제포럼』「중국경제의 기회와 위기, 우리의 대응방안」,p32
- Rew Reseach Center(2014)『2014년 봄 국제여론조사』,p27
- 中華全國工商業連合會(2014)『전국민영기업 상위 10대그룹』,p8
- SUMITOMO MITSUI TRUST BANK(2013.2)『調査月報 2013.2』「都市化による中國經濟成長の可能性」,p3, p4
- 商務部(2013)『「外商投資統計」とJETRO』,p9
- 公益財団法人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2014)『中國における日系企業の立地戰略の変化と影響要因』,p23
- 國際協力銀行(2014)『わが國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報告』, p42
- 帝國データバンク(2010.10.22),p7
- 帝國データバンク(2010.10.22),p19
- 경제계50(2014.2.24)『中國進出する日本企業の經營難』,p14
- 特定營利団体活動言論NPO(2014.7.14)
- 國務院發展研究中心中小企業研究所(2014)『중소기업연구』,p12
- 于濤(2013)「中國人口老齡化与老年消費問題研究『人口、資源与环境經濟學』」,吉林大學, p34
- 周學東(2013)「我國國有企業產權改革最优路徑研究」『經濟思想史』,武漢大學
- www.moneyweek.co.kr 제8381호
- 국제투명성기구(TI,2014)『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 中國國家統計局(2014),p52
- 2013년 기준『IDC(International Date Corporation Japan』,p32

要 旨

Presently,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is facing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a price collapse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The risk is coming from th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bubble in the governmental system. It is needed to pay attention to how great roles urbanization policy plays for the real estate's oversupply and price maintenance, but if urbanization fails, it will be impossible to avoid the bubble in its governmental system.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phenomenon that overseas companies are leaving the Chinese market. Due to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inside China and severer competition against indigenous companies, they are leaving China successively. Since the phenomenon of overseas companies leaving China leads to not only reduction in investment but deprivation of advanced technology, Chinese economy will face negative effects after all such as difficulty in its advancement and its deteriorated image shown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among non-overseas Chines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Japanese companies making a lot of investment to China. Lately, Japanese companies are increasing their investment to ASEAN regions while reducing their investment to China significantly. But the phenomenon of Japanese companies leaving China can be seen as their strategic correction for business. First, they are reducing overseas transfer or business expansion for areas where competition is fierce and are looking for the ways of aggressive advancement into the areas with high potentials for new business.

キーワード : order imbalance, urbanization, deviate from market,
investment in china, emigration ,Japanese Corporation,
china real estate market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계재확정일 : 2015. 7. 4